

**입법의회 (NLA), 모든 사람들의 현재 상황에 맞는 도시계획이 설계되기를 희망하며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도시개발 종합계획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입력 2018.04.23 (13.04)



2018 년 4 월 23 일 - 입법의회 도시계획심사소위원회는 관련 분산을 하여 전국 모든 지역에서도 이에 부합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고려하여 현 상황에 맞는 도시계획이 설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도시개발 종합계획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입법의회 도시계획법률안 심사 소위원회가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도시개발 종합계획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제 2 국회빌딩 306-308 호 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했으며 참석자는 입법회의의원, 도시계획심사소위원회, 특별위원회, 관련 정부기관, 대학교, 언론 그리고 일반 국민으로 총 150 명이 참석했다.

폰펏 위чит촌라차이 입법회의의장은 (NLA) "도시계획은 좋은 환경에서 도시 개발과 국민 삶의 질 사이에서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인간이 단계적으로 성장, 발달, 쇠퇴 하는 것처럼 도시도 발전과 생활주기를 가지고 있기에 현재 사회상황과 부합하도록 개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1975 년부터 도시계획법안이 오랫동안 시행되었으나 입법회의의 연구결과 위의 법률은 개혁과 국제 경쟁에 맞지 않아 개정, 새 법률 마련 그리고 여러 분야 관련자들의 의견청취가 필요했으며 이번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세미나가 열리게 되어 관련자들이 현재 도시계획의 문제점,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뿐 아니라 도시계획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의견 교류 및 제시의 무대가 될 것이다.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 제안 및 법 공포 시행 전에 이번 세미나의 쟁점들을 검토하여 도시계획법률안이 좀 더 완벽해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라고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였다.

왕립 학술원 회원 및 국가 예술인인 데차 분캄 명예교수는 “도시계획문제는 지난 기간 동안 정부가 국민 및 민간부문이 거주지 및 산업지구에서 비정상적으로 또는 수로를 방해하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과 함께 수용할 수 없는 인구팽창 및 무분별한 도시계획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또한 이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여러 문제들이 뒤따라 발생하게 하였다. 이에 태국의 미래 비전을 정하는데 저지대나 저수조에서의 도시 팽창을 멈춰야 했으나 그동안 거주지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제한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었다. 즉, 도시계획은 거시적인 단계부터 미시적인 단계까지 이뤄져야 하고 자연재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계획 수립시에는 지형정보도 활용 해야 한다. 한편 종주도시가 된 방콕과 같은 큰 도시에만 밀집되는 인구확산은 도시개발수립과 정착지에 있어서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국가 및 지역 단위의 도시개발 발전계획수립이 서로 장단기적으로 일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도시계획법률안은 국가도시계획정책 위원회가 국가, 지역 및 지방 단위에서 정책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할 수 있게 하고 전국 총 7,853의 지방자치단체에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들과 함께 도시 및 공동체가 서로 부합하고 상생 하도록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국가의 지속적인 도시계획과 정착지에 관한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태국 하원사무처 국회 방송국

낫타폰 싸완삽/기자

레누 케마관야/편집

태국 하원사무처 외국어 지원사무국 일본어 한국어과

솜자이 통쿤/번역